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강 무역」에서 발췌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551-5454)로 문의 바랍니다.

1. 세계工場自動化 시장 급성장

'90년대 들어 세계 공장자동화 시장이 정 보통신공학과 결합되면서 급팽창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장자동화시장이 최고의 신장률을 과시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미래산업중 하나인 환경산업분야에서 공장자동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스위스의 인테크노 컨설팅社는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세계 공장자동화 시장이 '90년대 중 연평균 6%씩 성장, 오는 2천년경 총규모가 917억 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뒤셀도르프전시협회(NOWEA)의 의뢰로 조사된 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공장자동화 시장규모는 538억 마르크를 기록했는데 이중 395억 마르크는 공장자동화 관련 상품 및 자동화시스템이 차지했고 143억 마르크는 자동화관련 기술 등 각종 서비스가 차지했다.

지난 해의 공장자동화 수요를 산업별로 보면 유화 및 제약분야를 제외한 화학산업이 195억 마르크를 차지했고 발전산업 부문이 95억 마르크를 차지,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중 최고의 수요 성장률을 나타낸 산업분야는 전년비 11.7% 증가한 환경산업이었다.

지역별 수요로 볼 때 아시아·태평양지역이 9.7%의 수요증가를 보여 1위를 차지했고 서유럽, 북미 등이 각각 6.5%, 5.3%의 신장

률을 기록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동유럽지역도 공장자동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재원부족과 정정불안으로 '90년대말에나 실질적인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美 電子산업 판매호조

올 상반기중 美 전자업계의 매출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출호조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전제품 등 일부 분야는 매출이 겨우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전자산업연합회(EIA)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전자업계의 전자기기 및 부품과 관련제품의 총매출이 1,500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동기의 1,393억 달러보다 7.7% 증가했다.

EIA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 매출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美 전자업체들의 건실한 성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상반기중 314억 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려 전년동기의 269억 달러보다 16.7%가 증가, 전년에 이어 여전히 가장 높은 매출신장세를 기록했다.

또 전자부품은 353억 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 전년동기의 311억 달러보다 13.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기통신 관련 제품도 188억 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 전년동기의 169억 달러보다 11.1%가 증가했다.

그러나 가전제품 분야는 올 상반기중 매출이 43억 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의 43억 1,000만 달러보다 0.6%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전자의료기기 제품은 매출이 38억 9,00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보여 전년동기의 39억 2,000만 달러보다 0.6%가 감소했다.

이 밖에 전자관련 제품 및 서비스 매출은 전년동기의 277억 달러보다 1.3%가 증가한 280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출은 134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3.95% 증가한 반면 군용 통신제품은 전년동기비 4.8% 감소한 148억 달러에 그쳤다.

3. 日, 知財權 損保제도입 검토

일본통산성·특허청의 지적재산권연구소는 미국 등 외국기업과의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말려든 일본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知的財産權損害保險制度’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일간공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일본통산성 방침은 미국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는 특허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일본기업들이 지불하게 될 손해배상액이 거액화되어 배상액 지불때문에 곤경에 빠진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일본의 損保각사가 배상금 및 재판비용을 보상해주는 ‘신상품’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적재산권연구소는 우선 특허권의 경제가치를 적정한 선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한편 손보사의 담당자도 참여하는 작업부회를 구성, 1년안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지적재산권 손해보험제도 실현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4. 日 반도체업계 增産 지속

日대형 반도체메이커들은 4메가D램에 대

한 수요회복에 대응, 여름휴가 기간을 단축하고 증산을 지속할 계획이다.

NEC가 NEC九州 등 4개 생산거점의 여름휴가 기간을 2~3일 단축하는 외에 東芝·富士通 등도 여름휴가기간을 단축·증산키로 하고 노조대표와 교섭중에 있다.

日반도체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경기불황에 대응, 감산을 강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계와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日반도체메이커들은 4메가D램 증산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NEC는 현행 월간 770만개 생산을 연말까지 900만개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東芝는 650만개를 800만개로, 富士通은 400만개를 50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D램 이외에 다른 반도체 수요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어 여름휴가 기간 단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NEC는 NEC九州·NEC山形 등 주요 생산거점 노동자 대표와 여름휴가 기간을 2~3일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휴가 시즌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일정수준의 조업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東芝는 大分공장에서, 富士通은 岩手공장에서 여름휴가 단축문제를 놓고 노사가 협의중에 있다.

5. 日 반도체시장 회복세 지속

올해초 침체국면을 벗어난 일본 반도체 시장이 해외수요 증가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보고서에서 올 하반기 일본 반도체메이커들의 4메가D램 생산이 상반기의 1억 9,900만개보다 25% 늘어난 2억 4,800만개선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하반기중 국내의 4메가D램 수요는 상반기보다 21% 늘어난 7910만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수요는 27% 증가

한 1억 6,960개를 기록, 전체수요의 6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TV, VCR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과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수요증가도 반도체시장의 회복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통산성 관계자는 수요 확대에 대응, 반도체 메이커들이 1메가D램에서 4메가D램 생산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미 대부분의 업체가 생산시설의 완전가동 체제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차세대 16메가D램의 수요가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의 수요확대에 따라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체들은 16메가D램 생산시설의 확충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6. EC, 새산업디자인보호법 추진

유럽공동체(EC) 집행위가 회원국간 산업디자인 보호법안을 통일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EC 집행위측은 현재 회원국별로 서로 상이한 산업디자인 보호법안을 통일시키기로 결정, 조만간 관계법안을 EC 각료 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EC 전체 차원에서 산업디자인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만들어진 법안은 산업디자인에 대한 통일된 보호요건과 적용범위 및 보호기간 등을 명시하되 엄격한 희귀성과 독창성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섬유, 신발, 자동차, 가정용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하되 이미 채택된 기존의 별도지침으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반도체와 선박장비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에 따른 설계 및 모델의 보호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25년까지로 결정됐다.

EC 집행위가 이같은 산업디자인 보호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현재 EC 회원국 중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정도가 국가마다 서로 크게 달라 이에 대한 통일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회원국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특정 제품이 국가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도 EC 집행위측은 상품의 역내 자유이동 및 단일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법안이 마련될 경우 집행위측은 국별로 서로 상이한 법률조항이 사라져 회원국간 산업디자인 보호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 중국 상해 대대적 산업구조조정 추진

중국 주요공업 도시중 하나인 上海市는 현재의 사업구조를 대대적으로 조정, 향후 2천년까지 자동차, 통신 등을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소재, 바이오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를 하이테크산업으로 개발해나간다는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상해시 당국은 지나친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극소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수년간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상해시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분야는 소형자동차, 통신장비, 발전장비, 마이크로전자, 컴퓨터, 의약품, 정밀화학 등이며 이외에 50개 카테고리의 주요품목들이 육성분야 리스트에 올라 있다.

상해시는 이 새 기간산업과 육성품목들을 통해 오는 '95년까지 연간 1천억원의 생산액을 창출해낼 계획이다.

이 규모는 상해시 전체생산액의 30%에 달

하는 것으로서 '90년의 332억원에 비해 무려 3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또 96년부터 2천년까지는 기간산업과 육성 품목의 생산액비중을 전체의 66%로 제고시켜 연간 생산액을 3200억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올해 상해시 경제위원회는 위성수신기 개발 등 14개 프로젝트를 수립,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프로젝트에 따라 향후 수년간 개발될 주요 상품분야는 위성수신기, CD플레이어, 0.8미크론집적회로, 무선호출기, 바코드 리더, 농기계용 레이디얼타이어, 식초산,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온수기, 수치제어공작기계, 자동와

인더, 제트직기, 자동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량모터싸이클, 대형컬러TV, 퍼지기술용 용세탁기, 스테인리스 스틸, 연속주조빌레트 등이다.

상해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의 주요부문인 첨단기술산업 육성분야는 마이크로전자, 레이저기술, 신소재, 바이오엔지니어링, 로봇, 유연가공시스템, 광섬유통신 등에 걸쳐 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95년까지는 현지에 50개의 첨단기업 및 시험기지가 설립된다.

상해시는 이 밖에 일부 산업의 확충을 위해 기지 이전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전자전람회 부대행사

「한·일 전자기술 합동세미나」 개최 안내

오는 10월 9일 KOEX에서 개막되는 제24회 한국전자전람회의 부대행사로 「제1회 한·일 전자기술 합동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발표주제

- 분야 : 전자부품(정보/통신/표시/광/기록/반도체 등의 전문 부품 기술분야)
- 내용 : 최근의 개발 동향 및 전망/부품설계 및 평가기술/부품개발사례 및 응용사례/ 국가간 개발동맹 및 제휴/일본의 부품개발 정책 방향

2. 발표자

- 일본 : 9명(관련업체, 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
- 한국 : 4명(관련업체, 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

3. 기간 : 1993. 10. 11~10. 12

4. 장소 : KOEX(한국종합전시장) 대회의실

5. 주관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